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확대 검토

소상공인 대상 신청 개시 1주일여 만에 1151명 접수 480억원 대출 실행 예정... 추가 금융지원 필요성 재확인

전주시가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의 경제위기로 4중고를 겪는 전주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빌려주는 경영자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전주시가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의 경제위기로 4중고를 겪는 전주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빌려주는 경영자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사진은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상담.

이는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사업이 개시된 이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어진 3고(高)1저(低)의 경제위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몰리면서 올해 예정된 자금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이다.

시는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의 상담 및 신청이 개시된 지난 10일 하루 동안 총 190여 건의 보증 상담(70억 원 규모)이 접수되는 등 지난 19일까지 약 1주일 만에 총 1151건 상담이 접수돼 올해 예정된 48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신청이 조기 마감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소기업 17명(법인 6, 개인 11)에게 9억 원(법인 2억 원, 개인 7억 원), 소상공인 1134명(법인 30, 개인 1104)에게 471억 원(법인 11억 원, 개인 460억 원) 등 총 48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대출실행도 이달 말까지 전북은행을 통해 모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전주 경제의 판을 바꿀 '전주시 경제산업 비전 2030'의 3대 첫걸음사업 중 하나인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은 전주시와 기관 출연금을 재원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

증하고, 전북은행에서 경영자금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대출 기간 5년 중 3년 동안의 대출금리 연 3%를 지원해 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개시일인 지난 10일 기준으로 산정된 대출금리는 연 5.85%로, 시가 연 3%의 이자를 지원해 주면 고객부담금리는 연 2.85%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많은 관심속에 조기 종료된 만큼 금융지원금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든든한 전주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되살아나야 한다"면서 "조기에 소진된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에 대한 관심과 문의를 통해 추가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만큼, 적기에 자금이 지원되도록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폐지를 팔아 모은 돈을 해마다 기부해온 홍경식 씨가 26일 전주시복지재단을 찾아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

80대 어르신, 폐지 팔아 모은 돈 기부

홍경식 씨, 집중호우 피해 지원 위한 특별모금 동참 전북지방변호사협회·삼화건설사 등 참여 이어져

폐지를 팔아 모은 돈을 해마다 기부해온 80대 전주시민이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모금에 동참했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 (이사장 윤방섭)은 26일 중앙동에 거주하고 있는 홍경식 씨가 전주시복지재단을 찾아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경식 씨는 "많은 비로 인해 폐지를 줍지 못해 방에 있다 보니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보다 더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팠다"면서 "적은 금액이지만 힘이 되고 싶어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 씨는 평소 전주시와 이웃으로부터 받은 도움과 사

랑을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겠다는 마음으로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폐지를 수집해 모은 돈 100~200만 원씩 그동안 총 600만 원을 기부했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값진 나눔을 해주시는 홍경식 어르신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드립니다"면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한 모금에 많은 단체, 전주시민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복지재단이 오는 8월 16일까지 진행되는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모금에는 홍경식 씨 외에도 전북지방변호사협회(100만 원), (주)삼화건설사(200만 원), (주)에스케이전하(50만 원), (주)수도(30만 원) 등 많은 단체와 개인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김욱기 기자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문화행사 '풍성'

11월 말까지 주민 위한 '문화가 피어나는 공연' 추진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가 혁신동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공연장이자 문화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된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에서 어린이와 일

반시민을 위한 다양하고 다채로운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문화가 피어나는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문화가 피어나는 공연'은 주민들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를 꾸준히 찾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문화 프로그램을 제

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는 27일에는 봄여름 여쿠스틱 밴드가 이곳에서 여름밤 음악회를 연다. 이들은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샤프라미 느껴진거야' △플로의 '아로하' △멜로망스의 '부끄럼' 등 시민들에게 친숙한 대중음악을 연주해 시민들에게 여름밤 시원함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후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에

서는 △퍼포먼스 버블(8월) △머무른의 '영화로운 음악회'(8월) △샌드아트공연(9월) △디너의 '낭만·클래식'(9월) △사이언스매지 공연(10월) △선율모리의 '우아한 풍류' △느린 날 트리오의 '당신이 찾던 재즈' 등 다양한 공연이 예정돼 있다.

김병수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더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농가에 농약안전보관함 전달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보영)는 26일 전주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성)와 협력해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농가 50곳에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농약안전보관함은 농약을 오복용하거나 자살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농약안전보관함 사용수칙교육을 이수한 농가에 보급됐다.

또한 전주정신건강복지센터는 농약안전보관함을 전달받은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농가 농업인 50명을 대상으로 농약안전보관함 사용법과 사용수칙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이와 관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전주시 전체 자살 사망자 163명 중 농약음독 자살사망자 수는 5명으로 집계됐다.

김보영 전주정신건강복지센터장(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은 "자살 수단의 접근성을 낮추고 제한하는 것은 자살 예방에 효과적인 만큼 이번 전달식을 통해 농약으로 인한 자살사망자가 줄어들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민의 안전과 자살 예방을 위해 다양한 관계기관 및 민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선 시 보건소장은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을 통해 안전한 농약 사용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6일 전주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농가 50곳에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및 관리 문화가 정착돼 자살 예방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전주시민들의 자살 예방과 마음 치유를 위해 전

주시보건소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주시는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만18~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 중 최대 30만 원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단,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

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회사 지원 속도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의 게시글을 참고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임대차 계약 경합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